

리더를 위한
품격있는 유머 매거진

2021
04

Monthly
유머리더십
Humor leadership



목 차

P. 01

편집자의 한마디
이제부터 유머로 호두까기 해볼까요?

P. 03

우와!한 유머건배사
공감을 끌어내는 메시지 건배사

P. 04

통하는 스피치 코칭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 BEST 3

P. 07

HUMORGRAM
이미지로 만나는 짧은 유머, 긴 생각

P. 08

독자인터뷰- 슬기로운 유머생활
유머가 없다면 양꼬없는 찌빵인생이지요.

P. 11

HUMOR LESSON
유머를 날로 먹지 말고 '품'을 들여라.

P. 14

이용만의 위트에세이
유머로 얻는 개인의 경쟁력

P. 16

[연예인의 유머감각]
유해진의 품격있는 말장난유머

P. 18

통조림 유머
외워서 써먹는 유머모음

편집장 : 최규상 유머코치

에디터 : 이용만 위트코치

April 2021

이제부터 유머로 '호두까기' 해볼까요?



글. 최규상 유머코치

"저는 3개국어 할 줄 압니다"

지난 주 유튜브에서 한 편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병원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 근무했던 지나영씨의 강의입니다.

"제가 3개국어를 할 줄 압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대구사투리입니다."

연단에 오르자마자 던진 위트에 청중은 박수를 치면서 웃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미국에 건너가서 20년 넘게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이 약간 어눌합니다. 게다가 대구사투리가 튀어나오니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약점인 사투리를 먼저 까발려 버립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약점을 당당하게 말해버리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녀는 이것을 '호두까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약점을 자꾸 마음 안에 감추다보면 어느새 껍데기가 딱딱한 호두가 되어 세상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급기야 내면의 열등감이 되어 자존감까지 갉아먹기 때문에 호두를 까야만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동대 사회심리복지학과의 이지선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소아정신과의사 지나영 교수-

이지선 교수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의 70%가 넘는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기간을 거쳐 결국 극복해 냅니다. 그 과정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수가 되어 인간승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강의를 듣는데 그녀 또한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유머러스하게 호두까기를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라당 타버린 여자 이지선입니다."

이 한마디에 청중은 웃으면서 긴 박수로 화답합니다. 잠깐 멈춘 후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제 인생이 화끈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제 인생이 화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 유머로 '호두까기' 해볼까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아픔을 이렇게 깨부수고 박살내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호두까기를 넘어 웃음으로 자신과 청중의 마음 안까지 보듬어 안았습니다.

지나영 교수도, 이지선 교수도 호두까기의 고수이며,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노는 유머의 고수였습니다. 아! 아름답다!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이것을 직역하면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입니다. 영어에서 레몬의 의미는 보통 시련, 고난, 아픔으로 해석됩니다. 그 레몬에 달콤한 설탕과 시원한 소다수를 넣으면 상큼한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달콤하고 유쾌하게 해석하고 바라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주어진 레몬을 자신만의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놀이입니다.

유머를 안다는 것은 인생을 유쾌하고 상큼하고 재미있는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저도 강의를 시작할 때 호두까기를 먼저 하고 레모네이드 한 잔을 청중에게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혀 짧은 유머강사 최규상입니다. 혀가 짧으니깐 너무 좋더라구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혀를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하하"

유머를 알기 전에 짧은 혀는 오랫동안 제 열등감과 괴로움의 호두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버리고 나니 어디서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만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일단 호두를 깨고 나니, 내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많은 아픔과 열등감의 껍데기를 벗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것들을 햇빛에 쬐이면서 온전히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유머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픔까지 사랑하고 끌어안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유머야말로 유쾌하게 호두를 까게 하고,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라고요.

미국 속담 하나 더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Everything is happening for me not to me"

"세상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생깁니다.

지천에 꽃이 피는 4월입니다. 나를 위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꽃을 마음껏 즐기시길!





세상을 즐기는 우와!한 유머건배사 #04

코로나는 '지부지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부지처!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는다'라는 뜻이죠.ㅋ

시끌벅적한 건배사를
나눴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을 준비하듯
상비건배사 몇 개쯤 넣어두면 든든하겠죠?

제 건배사는
윌리엄 예이츠의 시 한 구절로 하겠습니다.

"술은 입으로 흘러들고
사랑은 눈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 뿐!"

우리 멋진 인생을 이 술잔에 담아
인생과 사랑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사랑은 눈으로"하면
여러분이 :술은 입으로: 외쳐주세요.

삼행시 건배사

"위하여"삼행시

위: 위기일자리도
하: 하면 기회가 됩니다.
여: 여러분 힘 냅시다

가자미:
가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제 건배사는
구수한 된장국 삼행시입니다.

된: 된다고 믿습니다.
장: 장점만을 보고
꼭: 꼭 밀고 달려갑시다!

된다고 믿으면서
묵묵히 밀고 나갑시다.

제가 된장하면
여러분이
"꼭"을 외쳐주세요

재밌게 말하는 방법

BEST 3

통하는 스피치코칭

PRODUCED BY

이용만
위트코치

우와 대박!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해 줄게 ㅋㅋ
그러니까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재밌는 얘기를 내 평생 들어본 적 없다.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킵!
이마트가 웃으면? 하~이마트!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궁시렁 궁시렁!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 임금!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아재개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막무가내로 공격만 퍼붓고 끝이다. 앞뒤 맥락도 없고, 혼자 궁시렁 궁시렁 킁킁대더니 마지막엔 최저 임금도 체불당한 알바생마냥 불쌍한 표정으로 '왜 안 웃냐'라며 오히려 앞사람에게 타박이다.

이렇게 아재개그만 남발하는데 유머러스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과음한 뒤 숙취해소제 마시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줄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야식으로 족발 먹으면서 낼부터 다이어트한다고 하는 와이프.

재밌는 이야기를 정색하면서 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불신'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얘기가 재밌을 수 없고, 만약 재밌다면 그만큼 고통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 그럴까.

시중에 널린 유머책(멘트집), 스피치 관련 도서나 유튜브, 예능 등 백날 찾아서 봐도 다 부질없다. 대다수 사람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다. 한방에 웃기는 '유머멘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찌나. 유머 있는 멘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멘트(말)를 한 사람이 유머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저급한 웃긴멘트모음 이런 거 사서 보지 말라는 말이다.

참고로 나는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유명해지는 것도 스스로 꺼려 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여하튼 지금 이 글은 지극히 내향적이거나, 한껏 업된 분위기도 굳이 입을 열어서 기여코 망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간단하다. 딱 3가지만 기억할 것.

<능력, 꼬리 물기, 신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든 어디에서든 빵빵 터뜨릴 수 있다. 잘만 기억하면 포텐이 터지고, 까먹으면 죽빵이 터진다



첫 번째, '능청'이다.

여 :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양세형 : 세 살. 피부가 세 살이에요.

여 : ㅋㅋ 까~~ㅋㅋ 뭐예요!? ㅋㅋ

양세형 : 어, 아기가 말을 잘하네!

양세형은 절대 먼저 웃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박장대소하지 않는다. 그저 약간의 웃음을 머금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이다. 진짜 고수다.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능청스러움을 장착해야 한다. 속으로 웃겨주겠다는 엉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유머를 하기 전에 먼저 웃지 않는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표정으로 정색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입가에 열은 미소 정도만 띠면 된다.

야심차게 준비한 유머가 실패할 수도 있다. 괜찮다. 안 웃기면 말고 식의 뻔뻔하고 쿨함으로 그냥 넘겨버리자. 원래 이건 웃기려고 한 멘트가 아니었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유머 멘트가 실패했다면 혼자 머쓱하게 웃지 말고, 바로 다른 질문으로 슬쩍 피할 것.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핵심이다. 언제나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 스피드다.



두 번째, '꼬리 물기'다.

<https://bit.ly/2QcXDxz>

일단 위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1분15초)

여 : 제 몸매가 서구적이죠^^

박휘순 : 어느 나라요? /청중 : ㅋㅋㅋㅋ

여 : (살짝 멘붕) 러시아요!!

박휘순 : (구)소련같아요! 고르바초프! /

청중 : ㅋㅋㅋㅋ

박휘순 : 고르바초프 동상 앞에서 비둘기 밥이나 줘요!!

청중 : (다 쓰러짐) ㅋㅋㅋㅋㅋㅋ

여 : (완전 멘붕) 됐어요, 저는 회식 안 가요!

박휘순 : 네, 출국하세요!

*서구적→어느 나라→러시아→구소련→고르바초프→고르바초프 동상 앞에서 비둘기 밥→출국

개그맨들이 똑똑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다. 박휘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발력을 보라. 썩 고수다.

교차로에서, 정체 중이거나 교통 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는 일을 흔히 꼬리 물기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멘트를 시작으로 멈추지 않고 재치 있게 앞 멘트를 이어받아 말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단어를 듣고 관련 단어들을 정말 빠르게 생각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스피치에서는 브릿지(다리)라고도 한다. 아나운서들도 전혀 무관해 보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사를 만들어 말하는 테스트를 한다.



첫상대가 대화 초반에 한번 웃었던 포인트를 기억해서 대화 중간중간에 계속 써먹는 방법도 있다. 위 양세형의 멘트에서 여자에 대한 나이를 '세 살'이라고 했을 때 빵 터졌다. 그럼 대화 중간에 예의 바른 행동을 했다면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배웠네", 헤어질 즈음엔 "내일 어린이집 가야 하니까 일찍 자" 등.

세 번째, '신뢰'다.

신뢰가 없는 능청과 꼬리 물기는 그저 사기꾼의 스킬에 불과하다. 상대를 웃기려고 하기 전에 평소에 자주 웃고, 상대에게 재밌게 말하려면 내가 먼저 재밌게 잘 살아야 한다. 인간은 내가 좋아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뒤통수 맞기 전까지) 무조건 잘 웃어주는 본능이 있다.

정리하면, 재밌게 말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자. 그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능청스럽게 꼬리를 무는 스킬을 발휘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유머리스트.

흔히 재밌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다.

1. 말이나 행동을 계속하면서 에너지로 웃기는 사람
2. 은근슬쩍 한두 마디로 빵빵 터뜨리는 사람

내성적이고 활발하지 못한 성격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그맨들을 제외한 99% 사람들은 에너지로 웃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은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말하는 비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고, 모방하고 따라 하는 것>이다. 즉, 월간유머리더십을 두고두고 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머코치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가장 탁월한 길이다.

만약, 당신이 말을 재미있게 못 한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보길 바란다. 감이 딱 올 것이다.

-위트코치 겸 글쓰기컨설턴트 이용만.



짧은 유머, 긴 생각
HUMORGRAM

어쩌다 실수로
근심과 걱정에게
마음 한 켠을 내주면
이 놈들은
자꾸 주인이 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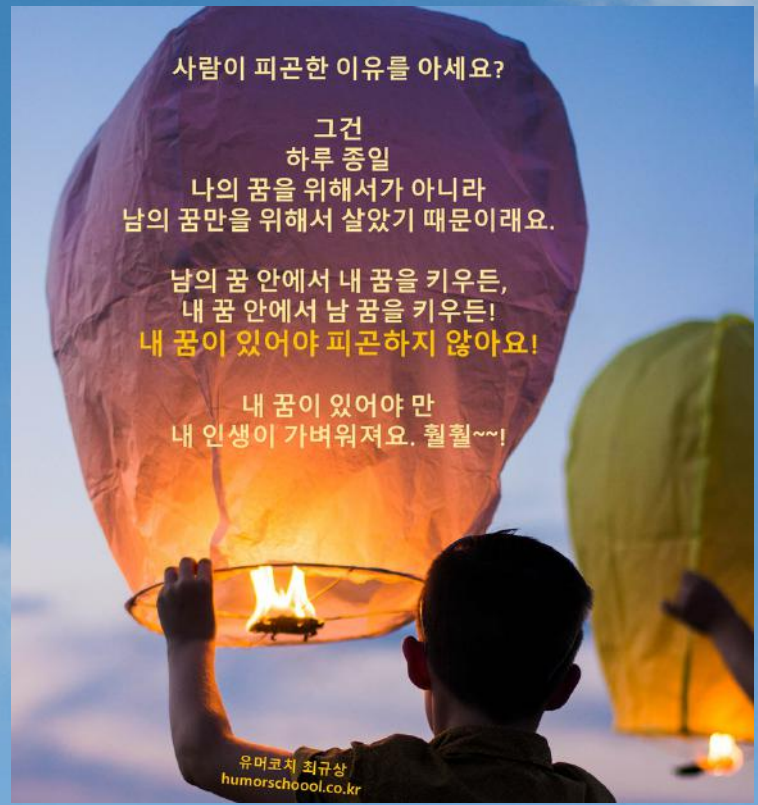
혹시라도
이 놈들이
마음안으로 발을 들이려하면 이
렇게 거절하세요.!

어떻게요?
슬그머니 미소지으면서
한마디 하세요!
"꺼져!"

인생이
막막할 때 있죠?

그럴 땐
막! 들이대고
막! 해버리라는 뜻이래요!

막막할 때는 **막! 막!**



사람이 피곤한 이유를 아세요?

그건
하루 종일
나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꿈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래요.

남의 꿈 안에서 내 꿈을 키우든,
내 꿈 안에서 남 꿈을 키우든!
내 꿈이 있어야 피곤하지 않아요!

내 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가벼워져요. 훨훨~~!

유머코치 최규상
humorschool.co.kr



사는 게 별거냐?
흥부처럼
살아봐!

흥이 많은
부자처럼!

최규상의 유머학교
humorschool.co.kr



유머가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인생이지요!

"유머를 즐기니 노후가 아이처럼 즐겁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는 74세의 장순각님에게 전화했더니 대뜸 하는 말입니다.

4년 전 유머클럽에서 장순각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시간 거리의 강화도에서 매달 강남유머클럽에 참석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유머를 배우고 싶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꼬박꼬박 유머클럽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노력과 인생이 궁금해서 종종 연락을 취하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내를 웃기기 위해 유머를 준비한다는 말에 와우! 또다시 감동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유머를 하신다고요?

네,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내와 함께 매일 논밭에서 함께 일합니다.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최고의 동업자입니다. 그런 동업자와 유머를 나누면서 매일 킁킁대니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와 나눴던 유머가 생각납니다.

"여보! 설탕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 반갑당! 그리고 소금은 반가워염이라고 인사한대. 그럼 식초는 뭐라고 인사할까? 바로... 안녕하셔! 하하하" 웃고 있는 아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유머를 나누면서 사소한 것에도 희희덕대는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하하하"

어떻게 아내와 유머를 나누게 됐나요?

제가 올해 74살이고 아내는 70살인데 100세 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시집와서 5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간 까칠하신데도 어머니의 비위를 다 맞춰가면서 삽니다.

어느날 그런 아내가 안스럽게 보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생각하다 유머를 만나게 됐습니다. 최규상 소장님처럼 나도 아내를 유머로 웃어야 겠다고 작정하고 유머책도 사고, 최규상의 유머편지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머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내가 잘 웃던가요?

처음에는 그저 피식하면서 웃다가도 어느 순간 박수를 치면서 웃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웃기려는 제 노력이 기특(?)하다면서 웃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머를 하다보니 일상에서 사소하게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가면 신도들이 아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하니까 더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하더라구요.

유머를 나누면서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 유머는 제 삶을 활력있게 하는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유머를 찾고, 유머클럽에 참석하고, 또 방구석유머코칭같은 온라인 유머코칭 강의에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머에 친숙하려고 노력합니다. 신기하게 유머를 즐기다보니 생각이 긍정적이고 되고, 약간 대범하게 됩니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들에 생각을 주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늙은이라는 말이 '늙 그런이'의 약자라고 하잖아요. 전 74세지만 늙 그런이는 아닙니다. 늙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를 궁리하니깐요. 그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품으니 생각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웃고 웃겨보려는 마음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머야말로 최고의 노후준비라 확신합니다.

완벽한 유머 예찬론자가 되셨네요.

최규상 소장님이 말했잖아요. 유머를 하다보면 사랑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공감합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측은지심이 있어야 유머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유머는 유치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매일 아내를 웃긴 유머를 친구나 성당가족들과 나눕니다. 그럼 이 나이에 유머와 위트를 공부하는 저를 보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합니다. 정말 유머없는 인생은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은 학교"라고 말했어요. 저는 유머를 통해 행복과 사랑을 다시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본인만의 유머를 즐기는 비법이 있나요?

특별한 비법은 아닌데요. 유머를 즐기다보니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머알까기입니다. 유사한 유머를 한 개 더 만들어보는거죠.

저는 유머초보자라 주로 단어를 활용한 알까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규상소장님이 하신 유머중에 이런 말장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깜짝할 새. 더 빠른 새는? 어느새! 그럼 행복한 새는? 웃고사새!

그럼 어떤 새가 또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 멋진 새가 떠올라서 아내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늘 웃고사는 새는? 바로 원앙새! 하지만 웃지 않고 늘 찡그리고 사는 새는? 바로 김새! 김이 샌다는 말을 김새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보면 머리 회전이 되고, 묘한 쾌감이 듭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리니 치매같은건 걱정하지 않습니다.하하



유머를 할 때 유의사항같은 것이 있을까요?

야한 유머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다보면 친구들이 종종 야한 유머를 툭 내뱉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기 때문인데 생각없이 던지는데 정말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큰 모임이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무심결에 내뱉어 아주 곤란해 하는 사람을 여러번 봤습니다.

야한 유머는 상대가 받아줄 수 있는 친분관계 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쩌다 한번씩 아내에게만 사용합니다. 그럼 더 큰 활력소가 되더라구요.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야한 유머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낮 뜨거운 상황을 만듭니다.

듣다보니 노부부일수록 유머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남는 것이 노년인데, 이때 조금만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웃음궁합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웃고, 유치한 유머일지라도 웃어주는 거죠.

무슨 싱거운 소리하느냐, 또는 시덥잖은 소리 하지마라, 체신머리없이 무슨 유머냐라고 반응하면 웃음궁합은 한순간에 깨집니다.

그러면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머는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하하하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캔자스대에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는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유쾌한 부부관계를 만드는데 유머가 가장 훌륭한 디딤돌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머를 나누다보면 점차 상대방의 감정을 읽게 되고, 친밀감이 더 진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웃음은 형광등과 같아서 한번의 웃음만으로 집안이 환해진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평생 꺼안고 삽니다. 장순각님과 인터뷰하면서 유머는 결국 사랑의 시작과 끝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웃게 할까로 시작된 소소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궁리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을 넘어 배우자와 가정을 즐겁게 하려는 그 마음이 진정한 유머리더십의 핵심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유머를 날로 먹지 말고 '품'을 들여라.

하늘에서 유머 감각이 툭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머강사와 유머코치로 활동하면서 타고난 유머 감각을 갈급해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을 포복졸도시키는 유머 감각!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은 유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제게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유머레슨으로 일상속에서 유머를 즐기면서 유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유머노하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유머 감각의 비밀은 품격과 품위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품격과 품위라는 단어 속에 "품"자가 있듯이 유머 감각을 가지려면 '품'을 들여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품"은 "어떤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라를 말합니다. 당연히 유머를 잘 하기 위해서는 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품을 들이지 않고 유머 감각을 갖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오늘은 품위있는 유머 감각을 갖는 세 가지 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번째 품은 "손품"입니다.

손은 부지런함을 상징합니다. 손품은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수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메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화에서든 책이든, TV든 재미있는 유머나 표현을 들으면 무조건 메모하세요. 사실 여기에서 유머 감각이 판가름 납니다. 펜을 들어 수첩에 적든,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입하든 곧바로 메모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30초 손품'이라 부릅니다. 30초 이내에 메모하지 않으면 거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유머는 기억력으로 하는게 아니라 메모력으로 하는 겁니다.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적자생존"은 유머력으로 가는 기본 중의 기본기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주인공이 여자친구에게 사랑고백을 합니다. "너만을 사랑한다. 너마늘! 그래서 요즘 난 마늘만 먹는다." 와우! 멋진 말장난이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순식간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사랑꾼이나 애처가가 좋아하는 음식재료는? 바로 마늘! 왜냐하면 늘 너 마늘! 그대마늘! 당신마늘을 외치기 때문에!"

꽤 멋진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손품을 들이다 보면 신기하게 재미있는 유머나 표현들이 거미줄에 걸린 것 처럼 제 눈과 손에 다 걸립니다. 손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유머표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두번째 품은 "머리품"입니다.

메모장에 적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메모를 열어보면서 언제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모만 해놓은 채 더 이상 열어보지 않고 애써 기록해 놓은 유머를 평생 잠들게 합니다. 적어놓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품을 들 일 때는 세 가지를 바탕으로 궁리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적어놓은 메모를 보면서 머리품을 들여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관계를 갖고 싶다면 마늘을 많이 드세요. 바로 너마늘, 당신마늘이라는 마늘이죠. 너만을 사랑한다. 당신만을 사랑해요라는 말로 자주 마늘을 먹어보세요."

어때요? 그럴 듯 하나요? 마늘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사랑이야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연인들, 부부들, 아내들, 남편들에게 이런 멘트를 던지면 꽤 좋아할 겁니다. 머리품은 메모해 놓은 유머를 곱씹으면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 계속해서 유머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야 하지요.



세 번째 품은 "입품"입니다.

손품과 머리품을 들어서 만든 멘트는 당연히 입에 올려봐야 유머가 완성됩니다. 수첩에만, 메모장에만 적어놓는다고 유머감이 생길리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실전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실전에 사용하기 전에 여러번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권투에서 실전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경기를 합니다. 스팅싱상대와 실전같은 연습을 합니다.

저는 유머를 나눌 사람을 유머친구라고 부릅니다. 유머친구가 있어야 언제든지 쉽게 유머를 주고 받으며 실전감을 쌓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유머친구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웃기기 위해 머리품을 들인 유머를 실전처럼 연습합니다. 말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몸짓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을 궁리합니다. 유머로 어떻게 표현하고 연기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연습해보면 어떤 표정과 목소리가 적절한지, 어떤 몸짓을 하면 좋은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유머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이 유머친구는 언제든지 웃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없어도 웃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어주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입품을 들이기 위해 아내나 자녀를 유머친구로 삼으면 일석삼조의 이익이 있습니다. 유머도 연습하고, 함께 웃으면서 친밀감도 쌓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디딤돌까지 쌓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머감을 갖는 세 가지 품을 살펴봤습니다. 이 글을 읽었다고 유머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유머감각보다는 유머력이 생깁니다. 유머력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반복하면 생기는 감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적고, 언제 써먹을지 궁리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연구하는 습관을 가져라입니다. 18년동안 제가 유머에 미치면서 얻는 실전경험인데 여러분도 하루에 3분이면 손품, 머리품, 입품을 거쳐 유머감을 연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머로 얻는 개인의 경쟁력 >

'41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평균 나이이다.

그렇다면 유머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

가령 시력이 나빠진다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대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머 감각을 잃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잃어버린 유머 감각으로 개인 및 직장, 사회생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스탠퍼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제니퍼 아커(Jennifer Aaker)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23세'에 유머 절벽을 넘어간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유년 시절은 평온하다. 그러나 성인기엔 대부분 그렇지 않다. 6세 아이는 하루 평균 300번 정도의 웃음을 짓는 데 반해, 성인은 하루 동안 채 15번도 웃지 않는다. 그리고 40세인 사람은 300번 웃음을 기록하는 데 평균적으로 2개월 반이 걸린다고 한다. 실제 2013년 갤럽에서 166개국 14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23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하루에 웃는 빈도가 급감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황혼기가 되면 다시 더 자주 웃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이유는 황혼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웃음을 줄어둘게 만드는 범인은 '직업(일)'일 수 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일터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진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돌변한다. 웃음을 버리고, 슈트와 넥타이를 취한다. 곧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 실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700명 이상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일수록 매일 직장에서 '자신의 유머 감각과 실제 성격을 과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밝힌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유머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유머는 진지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백 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영진 98%가 유머 감각이 있는 직원을 선호했다고 한다. 심지어 84%는 '유머 감각이 있는 직원이 일을 더 잘한다고 믿는다'라는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직원들은 스스로 유머 감각을 드러내길 꺼려 하지만, 정작 경영진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직원을 선호한다니 재밌지 않은가? 마치 밤 10시 30분에 라면 끓여먹으며,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한다고 말하는 와이프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웃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머가 실패했을 때, 즉 반응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웃지 않을 때 받을 심리적 고통이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유머가 웃음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농담이 적절하다면, 여전히 자신감, 능력 및 지위를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 꼭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게 최우선이다.

우리는 모두 근육을 갖고 있다. 물론 나를 포함한 누군가에게는 공기처럼 안 보이거나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튼 유머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으며, 근육처럼 뽐뽐하게 키울 수도 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꾸준히 어디에서 연습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월간 유머리더십>을 꾸준히 구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머를 익히고, 잠재되어 있던 유머 감각을 깨워주면 된다. 그리고 <최규상의 유머학교>단독방에서 다양한 유머들을 매일 공유하면서 연습해보면 된다.

유머는 단순히 많이 웃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머는 직장 내 업무 관계와 개방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 콕테일을 방출한다. 유머에 흠뻑 취해보길 바라며.

-혈중 유머농도 0.1% 글쓰기컨설턴트 이용만.



[연예인의 유머감각]

글. 최규상 유머코치



유해진의 품격있는 말장난유머

며칠 전 밥상머리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몸에 안 좋은 청바지도 있네. 어떤 청바지인지 알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처음 듣는 척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유해진이래! 몸에 유해한 청바지! 유해진! 호호"

함께 웃다보니 작년에 유해진의 유머를 분석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큰 웃음을 빵빵 터지게 하는 유머보다는 잔잔한 미소를 만드는 생활유머를 즐겨합니다. 그의 유머를 듣다보면 따뜻한 인간적인 향기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그가 출연했던 <삼시세끼>와 <스페인하숙> 등의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위트와 유머를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유머는 너무 쉬워서 초보자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유머감각 교재가 될 것 입니다. 유해진의 3가지 유머비법을 나눕니다.

첫번째 유해진의 유머비법은 단어를 무조건 지지고 볶고 찜찜 먹는 것입니다.

유머를 잘하고 싶다면 당연히 단어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다양하게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유해진의 전매특허 말장난은 반대말 놀이입니다. 상대의 말속에서 반대말을 찾아내서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스페인 하숙> 촬영을 위한 사전모임에서 PD, 작가, 출연진이 모여 숙소난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눕니다. 그런데 라지에이터 이야기가 나오자 유해진이 가볍게 말장난을 던집니다.

"그렇게 큰 게 필요하나? 스몰에이터는 없어?"

라지(Large)의 반대말인 스몰(small)을 활용한 말장난입니다. 당연히 출연진도, 스텝진도 빵 터집니다.

이후 촬영을 진행하면서 스페인은 갑오징어가 비싸다는 말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유해진이 오징어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갑오징어 말고 을오징어로 해요!"

예전 <삼시세끼>에서도 유해진의 반대어 말장난이 작렬했지요.

"영상통화는 그렇고, 영하통화라면 쿨!"

갑과 을은 반대어는 아니지만 유사반대어쯤 되겠지요. 어쨌든 반대어를 찾아서 말장난하는 것은 유해진의 주특기입니다.



이런 말장난은 잘못하면 갑분싸(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해주고 웃어주기로 마음먹으면 갑분빵(갑자기 분위기를 빵터지게 하는)이 됩니다. 보통 아재개그의 90%가 말장난입니다. 유머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을 하면서 반대말, 유사단어, 동음이의어, 단어비틀기, 단어바꾸기에 익숙해지면 유머기본기가 탄탄해집니다.

두번째 유해진의 유머비법은 자신을 유쾌하게 풍자하는 것입니다.

유해진식 유머의 매력은 자신의 단점을 풍자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가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면 매력을 발산합니다.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튀어나온 입술 위로 떨어집니다. 하하하”

유해진의 트레이드 마크는 남보다 약간 더 튀어나온 구강구조입니다. 추측하건데 그의 튀어나온 구강구조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더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강구조를 웃음의 소재로 삼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평소 독서와 등산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양하면서 따뜻한 심성을 길렀기 때문에 이런 유머들이 탄생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은 바로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유해진의 유머비법은 웃음과 능청과 너스레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무표정을 짓고 있으면 누구나 무서운 표정이지만 유해진은 조금 더 살벌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영화 럭키에서 살인청부업자로 연기했을 때 짓는 무표정은 살기가 어려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능에서 보이는 유해진은 늘 웃고 있습니다. 유해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장난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웃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웃고 있으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언제 말장난이 튀어나와도 웃어줄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창한 날, 기름진 웃음뿔밭에 유머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뿌리기만 하면 곧바로 싹이 트는 옥답과 같은!

웃는 표정과 함께 맛깔나는 유머를 만들어내는 1등공신은 그의 능청스런 익살과 너스레입니다. 천연덕스럽게 말장난을 던지니 받는 사람도 웃음으로 가볍게 받아 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능청연기로 이어집니다.

<스페인 하숙>에서 한국인 숙박고객에게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군대 어디 근무하셨어요?"

"전 해병대 다녀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몇 기...."

"1,067기입니다"

고객은 약간 경직된 듯 유해진에게 묻습니다.

"해병대 나오셨어요?"

그러자 유해진이 능청을 떨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기수 물어보면 다들 쫄더라구요!"

함께 너털웃음을 터트립니다. 능청스런 연기를 바탕으로 한 웃음제조의 천재입니다. 상대가 웃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너스레와 능청은 유머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늘 편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능청까지 무장했으니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무장해제 됩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하는 능청은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미국 사상가이며 노예폐지운동가였던 헨리워드 비처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유머감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에 모든 조각돌마다에 삐걱거린다." 유머감을 가진다는 것은 이 거친 인생길을 부드럽게 타고 넘을 수 있는 스프링이라는 것을!

한 정신병 환자가 바나나를 소금에 짝어 먹고 있었다.

지나가던 의사가 그걸 보더니 물었다.

"아니 왜 바나나를 소금에 짝어 먹습니까?"

그러자 환자가 의사를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대답한다.

"의사 선생님도 참 이상하시네요. 이렇게 짠 소금을 어떻게 그냥 먹는단 말이 오?"

가만 생각해 보니 맞는 것도 같네요. ㅋㅋ

통조림유머

CANNED HUMOR

통조림유머: 외워서 하는 유머



당기만해도 취하는 술은?...입술.ㅋ
당지않고도 취하게하는 술은? 마술!

아내가 늘 마시는 술은?

...
"화장술"ㅋㅋ

난 늘 아내가 풍기는
화장술에 취해있다..ㅋ

지하철에서 남학생들만 앉아있는데

한 여학생이 삐집고 앉았다.

그러자 한 남학생이 슬쩍 비꼬며 말했다.
"개밥에 완전 도토리가 끼었네ㅋㅋㅋ"

목적지에 도착한 여학생이
한마디 던지고 내렸다.

"개밥들아 잘가라..... 도토리는 내린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충은?

맞으면 죽진 않지만
이거 한 방이면
몸과 마음이 괴롭지요!
.....눈총!

그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충은?
맞으면 행복하고 즐겁지요.
.....은총!

미소짓지 않으면 눈총이 되지만,
미소지으면 순식간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은총이 되지요!
눈총보다 은총을 쓰는 하루!

토끼가 길을 가다가 당근을 발견했다.

당근은 토끼를 보자마자 잡아먹히기 싫어
미친듯이 도망쳤다.

당근을 찾아헤매던 토끼.
마침 헌혈차에서 "무"가 내리는걸 보았다.

토끼가 달려가 "무"를 꼭 잡으며 한마디했다.

"야! 당근! 이리와
니가 피뿐으면 내가 모를줄 알았어?"ㅋㅋ

당근이 피를 빼면 무로 보일수 있겠네요.ㅎ

종종 방문했던 동네 치킨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바삭바삭한 치킨맛이 일품이었는데
사라지다니 아쉬웠습니다.
"여보! 아깝다. 저렇게 망하다니!"

그러자 아내가 웃습니다.
"망한게 아니라
다른데 더 큰 매장을 만들려고
여기 매장을 폐업한 게 아닐까?"

"아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망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했지만,
더 잘 되서 나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평상심을 찾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 입이 찢어지고, 잇몸이 붓고,
젖몽우리가 부풀어 올랐던 성장통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은 익어가는 중입니다.

발행 및 편집인: 최규상(010-8841-0879) / 이메일: humorcenter@naver.com
에디터 및 작가: 이용만(010-5488-1508) / 이메일: ymlee0070@naver.com
발행처: 한국유머전략연구소, 최규상의 유머학교 / Designed by CANVA